

특별연재

악안면외과 교정술 (I)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악안면구강외과학 교실

교수 남 일 우

악안면외과 교정술은 악골, 안면 혹은 구강에 어떤 기형증에 있을때 이를 외과적 처치에 의하여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악안면, 구강영역에 발생하는 기형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비대칭성안모, 악골의 전돌증이나 후퇴증, 개교증, 토순, 구강과열 및 선천성안모발 육부전증등 여러가지가 있다.

본인은 지난 83년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스위스 쥘리히 치대 악안면외과 교실을 방문하여 이곳 교수들과 접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강연도 듣고, 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곳 병원에서 외과적안모 교정술등 여러가지 새로운 施術方法등을 見學하면서 새로운 手術方法을 研究한 바 있다. 誌面과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앞으로 數回에 나누어서 악안면외과 교정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주>



사진 1. 쥘리히 치대 및 병원

있다.

쥘리히 치대는 쥘리히 대학교내에 있는 단과대학이다.

치과대학은 5년제이고, 학생은 1년에 57명이 정원으로서 입학되고 있다.

구강, 악안면외과를 전공할 의사가 되고자 할 때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대학의 최종 2년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된다. 그러나 기타 치과의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치과대학 5년 과정을 마친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쥘리히 치대는 학장이 없고, 서무직 관리과장이 행정직을 맡고 있으며, 철저한 과장 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 대학병원은 주일중 5일간 진료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응급처치실을 두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구강 악안면외과교실을 보면 과장에는 Obwegeser 씨가 맡고 있으며, 전임강사격인 PD Dr. H. Sailer가 그다음 서열이며, 그의 약 10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 오전에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

우선 쥘리히 치대 악안면외과 교실부터 소개드리고져 한다.

스위스는 서유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41,000km²이고 인구는 약 6,400,000명이며, 수도는 베른이다.

스위스에는 4개의 치과대학이 있는데 쥘리히, 베른, 바젤 그리고 제네바에 각각 1개의 치과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는 별다른 국어가 없이 크게 독일어 사용지역, 프랑스어 사용지역 및 이태리어 사용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부분 국민이 이들 3개국어를 갖고 대화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쥘리히는 인구 약 400,000명으로서 스위스 도시중 가장 큰 도시이며 주로 독일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용어인 것이다.

쥘리히는 칸톤 특별구의 수도이며, 쥘리히 대학교는 칸톤 특별구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유지 되고

술할 환자를 모두 불러서 치료실에서 최종 검토하게 되며, 오후 1~2시 까지는 회의실에 교수, 의사, 마취사 및 간호원과 기사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가지 토론과 검토 끝에 환자에 대한 수술방법 및 시술에 대하여 강의 하고 결정한다. 그림 2는 Obwegeser 교수의 사회하에 의국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2. 구강, 악안면외과회의(서있는 사람은 prof. H. Obwegeser)

이곳 치과대학은 구강, 악안면외과 교실에 3개의 전용 수술장이 있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병원에는 4개의 수술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금년 12월중에 준공될 예정이라 한다.

이곳 수술장에서는 여러가지 외과적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나, 특히 상악 및 안면부에 있어서 Le-Fort I, II 그리고 III 수술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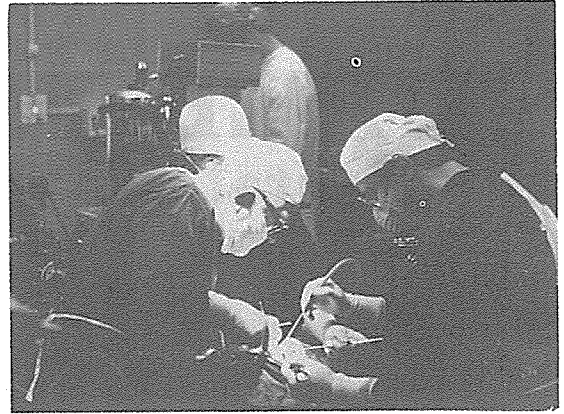


사진 3. 중앙이 Obwegeser 교수



사진 4. 유리히 시내 Me'nerva Street 가에 있는 기숙사앞에 선 필자

<다음호에는 Le Fort I 골절단술에 의한 안모교정술에 대하여 기술코져 한다>

대치기협 종합학술대회 개최 창립이래 최대회원 등록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윤남기)가 주최한 제10주년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9~10일(양일간) 8백여 회원이 등록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종합학술대회에는 양원식 치협학술이사, 보사부 의료제도과장을 비롯,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근 학회장의 개회선언, 윤남기 협회장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개최된 학술대회는 서울치대 장익태 교수의 "국부의치 제작시의 문제점"에 관한 특강을 비롯, 서울치대 이선형교수의 "도재전장 금관의 심미적고찰"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고대 보건전문대 치과공과 이임찬씨가 "전치의 배열시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에 대한 연세발표와 모두 12편의 연



세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는 10여 상사의 전시업체가 참가 많은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